

재현의 진실과 미적 성실성

- <암태도>론 -

송 기 섭*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반영양식의 유연성 |
| 2. 대개적 지식인의 구현 | 5. 맺음말 |
| 3. 민중 주체의 신생과 자발성 | |

1. 머리말

현실 반영의 양식으로서 소설이 지닌 정신적 자세는 진지하고도 숭고하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구현에 바쳐진 소설의 허구세계는 실제하는 그것보다 더 큰 정감과 의미를 머금고 긴장감 있게 다가온다. 재현의 기초적인 인식과 방법은 미적 성취를 위해 가공된 허구를 구제하는 현실과 분리하지 않으며, 최소한 사실임직함에 도달하고자 의도한다. 반영 소설에서 현실은 그것의 허구 세계를 가능케하는 디테일의 절대적 원천이자 미적 인식의 풍부한 토대가 된다. 『암태도』는 이러한 반영 미학의 의의와 미적 태도를 가장 근접한 층위에서 이루어내고자 기획된다. 이는 루카치가 리얼리스트에게 엄정히 요구한 미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적 성실성을 여하히 수행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될 터인데, 송기숙은 작가에게 부여된 그러한 책무를 강굴한 민중 의식과 체득된 정감으로 고상하게 넘어선다. 미적 성실성¹⁾은 반영의 객관적 공정성 못지 않게 작가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의 수반을 요구한다. 그는 『암태도』를 통하여 이러한 차원의 반영론적 양식을 완미(完美)하게 구현하면서 리얼리즘 소설의 진정성과 전망을 제시한다.

진지한 작품에 대한 기대²⁾는 리얼리즘 예술이 궁극으로 지향하는 가치 범주에서 비롯된다. 진실 갈망, 문학이 자체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창조자로서 작가의 건결성(堅決性)에 있어 이토록 성실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한 적이 없었을 리얼리즘 소설은 실존하는 인간의 삶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서고자 갈구한다. 반영론에서의 창작방법과 세계관의 창발은 그러한 진정성에 다가서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며 구획들이다. 『암태도』는 민중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믿음을 시종 유지하면서 리얼리즘이 함유하는 삶의 진실을 표현코자 한다. 송기숙에게 민중주의 세계관을 두드러지게 표징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민중의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한 언어와 서사적 틀에 담아 전달하는 데 있다. 『암태도』는 현실을 얼마나 냉철하게 투시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계급 관계의 모순을 파악하고, 그것을 미감 원리에 따라 표현해 내느냐는 반영론이 문제시된 작품이다. 작가는 이러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허구를 가급적 배제하고 객관적 현실의 핵심적 부면을 재현코자 하며, 실재하는

-
- 1) 창작에 임하는 비판적 리얼리스트의 엄정한 반영태도를 나타내는 루카치의 용어로 심미적 정직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는 반영의 객관성 못지 않게 현실을 냉철하게 투시하려는 작가의 역사적 사회적 의식을 동시에 수반한다. 한 작품의 사실주의적 객관성은 작가의 심미적 정직성이 내재된 창작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된다고 루카치는 간파한다. 이때 미적 성실성, 즉 심미적 정직성은 올바른 현실 반영과 형상화를 구현하는 올바른 의식으로, 참다운 인간 삶을 도모하는 문학적 전형을 창조할 원리로 작용한다(차봉희,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 한마당, 1987, 78-80면 참조).
 - 2) 일상적인 현실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것,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넓은 인간 집단이 문제성과 실존적 진실 속에서 보여지는 현실 재현의 대상이 된 것, 아무렇게나 골라잡은 인물과 사건을 당대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 유행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 자리잡게 하는 것, 이것이 현대 리얼리즘의 초석이 됨을 에리히 아우렐바하는 저목한다(『미메시스』 근대편, 김우창·유종호 역, 1988, 202면).

현실의 비참하거나 혹은 의연한 삶을 밀도 있게 드러내는 데서 서사적 긴장과 아름다움을 창출하고자 한다.

암태도에서 발생했던 소작쟁의는 작가가 실제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 포착하고 분석해야 할 재현의 매재이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반세기를 거슬러 오르는 과거의 소산으로 집단의 기억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를 재현하는데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소멸된 과거를 어떻게 제대로 재생해 내느냐에 있기 보다, 그것이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유효한 기억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 과거의 현재 연속성이나 구속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보의 시각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억의 재구는 별 의미를 겸비하지 못한다. 『암태도』는 현실의 질곡을 과거의 그것에 부합시키며 칠팔십년대 민중 운동의 의의와 당위성을 기민하게 부각시킨다. 이는 “역사적 현실”을 “엄혹한 긴장”³⁾을 유지하며 응시하고자 한 리얼리스트로서 작가가 간직하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한 집단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내부에 간직한다. ‘암태도’의 소작인 집단은 파탄에 처한 농민 계층뿐 아니라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 전체의 운명으로 확대되는 감정과 의식의 전형성을 지닌다. 계급과 민족의 동일성을 반성적으로 구성하는 작가 의식은 시대에 대한 절망적인 현상과 외침에 대한 인간적인 통찰에서 구축된다. 가증스러운 인간과 폭압적인 현실에 대면하여 분노하는 민중을 섬세하고 심오하게 묘사해내는 데서 그러한 작가의 반영적 시각은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그것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고통받아온 집단에 작가 또한 동질적으로 내면화되는 상태를 지시하기도 한다. 『암태도』는 집단의 기억에 대한 재현이자 민족의 역사적 고통과 역경에 대한 기록이다. 나아가서 이 소설은 그것의 계급적, 혹은 민족적 극복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진보적 이상을 담지한다.

수탈과 굴욕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통찰,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탈각코자 하는 가열찬 항쟁, 『암태도』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서사의 틀이 짜여진다. 자신의 계급이 처한 부당한 처지를 자각해 가는 데는 매개적 인물의 개입이 요구된다. 민중과 민족이 처한 시대적 아픔을 진정으로 자신의 그것으로 흡입하여 그들의 계급성을 일깨우는 지식인의 역할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몫을 차

3) 송기숙, 「작가에게 지워진 집」, 《창작과비평》(1994. 겨울), 435면.

지한다. 현실의 깊은 사상적 반영은 이러한 문제적 인물의 끈질긴 투사와 올바른 판단에 의해 구현된다. 그러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민중임을 이 소설은 희망의 서사를 통해 확고하게 내비친다.

역사를 살아내는 주체, 그 역사를 인간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변혁의 주체는 민중임을 『암태도』는 집요하게 추적해 간다. 민중의 계급적 자각과 실천만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희망의 조건으로 드러내는 서사적 틀은 문학이 견인해내는 진보적 의식이 투영되는 전형적 모형에 해당한다. 리얼리즘이 역사 자체의 혁명 세력들의 발전에 의지하고 대중의 역사적 각성의 전조와 징후가 되는 인간의 내적 능동성의 확립⁴⁾에 의해 구축되는 생생한 현장을 이 소설은 풍부하게 구비한다. 그것은 농민운동의 역사적 맹아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제도적 모순과 탐욕적인 인간상을 폭로하며, 그러한 반인류적인 제반 현상들을 개혁하려는 도덕적 열정에서 이루어진다. 리얼리즘은 모든 디테일의 충실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지 삶 속에서 도덕적인 요소를 끄집어 내면서 현실을 이상화하는 서사를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진리를 목표로 한다.⁵⁾ 『암태도』는 이러한 리얼리즘의 진정성에 다가서고자 집단의 기억을 인간적 삶을 위한 보편적 현상으로 재생시킨다.

2. 매개적 지식인의 구현

생존의 위기는 인간에게 가장 위태롭고도 긴박한 실존의 문제이다.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 삶의 상황은 사람들의 동정심과 분노를 자아내며, 이윽고 구원의 열망을 이끌어낸다. 인간 존재의 위기를 몰아가는 악은 그러한 마음들의 공감에 의해 적대적으로 대치되면서 떠오른다. 이때 악은 역사의 법칙성과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그것의 속성을 여지없이 내보이기도 하고, 종내 파멸하는 모습을 남기며 연민스럽게 사라진다. 『암태도』의 현실재현은 이러한 서사구조를 원형적 패턴으로 간직한다. 그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내밀한 지경에

4) G. M. 프리들렌데르, 이항재 역, 『러시아 리얼리즘의 서학』(문원출판, 2000), 50면.

5) 스테판 코울, 여균동 역,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미래사, 1986), 95면.

서 형성되는 감정과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기에 옹호한 서사미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본모습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 민중의 삶을 묘사하고자 하는 성실한 노력에 의해 가능케 된다.

리얼리즘 작가는 현실을 존중하고 현실에 의거하여 현실 생활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고 소설의 진실성을 추구한다. 작가의 사상과 세계관은 객관적 현실을 탐색하고 인식하고 반영할 때 형상적 사유에 수반하여 그 능동적 작용을 하고, 이 작용은 소설의 진실성 속에 유기적으로 표현된다.⁶⁾ 세계관은 한 집단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암태도』는 민중주의 시각에서 그것을 형성하며, 농민들을 일깨우고, 나아가서 세계를 변혁코자 한다. 작가의 이러한 순결한 의식을 구현하는 인물이 서태석이다. 진지한 재현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참되게 투시하고 분석하여 거기에 내재된 악재를 들추어내고 올바르게 교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리얼리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꿈꿨던 객관세계에 대한 관찰력과 더불어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반영 소설은 대개의 경우 작가에게 부과된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작중인물을 설정한다. 서태석은 리얼리즘의 구도와 미적 태도를 구현하는 중심 인물로 서사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성격화된다. 작가의 의식을 대항하는 서태석은 정당한 재현의 진정한 의미를 창발하기 위하여 기획된 인물임을 표징하며 서사의 중심에 시종 머무른다.

지식인의 당위적 가치와 모범적 행위를 실현하는 서태석은 엄혹한 현실을 정시하고 깊이 있게 발굴하며 심각한 묘사를 일구어내는 작가의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지한다. 존재의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계급에게는 그러한 질곡으로부터 구원을 이끌어낼 매개적 대상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암태도』에 그려지는 소작인들은 일제의 민족 수탈이란 간계로 악화된 소작제도에 의해 최악의 생존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간고한 상태로 내몰린다. 서태석은 그들에게 위기의 정황을 계급적으로 인식시키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되돌려받도록 도모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 싸움은 지주하고 소작인들 싸움이 아니고, 지주하고 서태석의 싸움”⁷⁾이라고 섬사람들에게 회자되듯, 그는 소작인들

6) 전형준, 『현대 중국의 리얼리즘 이론』(창작과비평사, 1997), 302면.

7) 송기숙, 『암태도』, 창작과비평사, 1981, 35면.

의 정의에 절대성을 부여받는다.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권의 법률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일본의 대자본을 한국농촌에 끌어들여 식민지 농촌을 효과적으로 수탈하는 수작에 불과”하며, “토지조사 결과 소작인들이 누리고 있던 경작권이 부정되고 소멸되어 버린”⁸⁾이다. 이로 하여 당연히 부여되던 소작권이 부정되고 일년 단위의 경작권으로 불안하게 주어지자 마름과 지주의 횡포와 수탈이 가혹하게 가중된다. 서태석은 이러한 농촌 수탈의 간계와 현상을 주시하고 소작인들의 자각과 진취적 행동을 촉구한다.

이러한 서태석의 매개적 행위는 시대의 왜곡된 현실을 민중에게 일깨우는 문제적 인물 조건을 구현한다. 암태도의 소작쟁의는 서태석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전위의 눈'에 의해 그 맹아를 틔우게 된다. 그들은 야만 상태에 빠져있는 식민지 현실을 응시하며 사악한 힘의 속성과 부당성을 간파한다. 이 불온한 힘의 원천에 식민화 제국주의의 탐욕이 자리한다. 그것을 민족의 주체 세력인 민중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들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숭고한 의무라 여긴다. 민족적 미성숙 상태로부터 빠져 나온다는 명분 하에 지식인에게 계몽의 과제가 강박된다. 식민지시대의 민족 현실로 인하여 설득의 힘을 얻게 된 계몽은 사람들의 사적 감정을 제압하는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고 파급된다. 서태석을 비롯한 지식인은 그러한 맥락에서 절대적 지위를 구축하면서 형상화된다.

그러나 암태도의 소작쟁의를 지도하는 지식인들이 민중세력으로 상징화된 그곳의 소작인들과 지식계급이란 우월성으로 차별화되어 군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미성숙은 다른 사람의 인도를 기다리는 무능력함을 말한다.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억압된 영혼에게 생명을 간직한 삶의 주체로 일으며 세우는데 이들의 본래적 역할은 주어진다. 서태석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철저하게 자각한다.

소작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의 의사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싸우기도 자기들이 싸워서 그 승리도 자기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8) 『암태도』, 42-3면.

말하면 이런 싸움에서 자발적으로 싸울 수 있는 훈련을 쌓게 하여 그들이 얻은 승리에서 자신들의 힘에 자신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봐요.⁹⁾

진보적이고 사색적인 인간의 정신을 구현하는 서태석은 현실의 사태를 가장 정밀하게 분석하며, 운동의 방향이 어떠한고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가장 이성적으로 추론한다. 여기에는 현실을 그 전체성에서, 그 발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은 그것을 담당할 프롤레타리아뿐이란 명확한 계급적 관점이 담긴다. 소작인의 처지와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해명해 내려는 『암태도』의 소설적 구도는 이러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중과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부류로 상징화되는 암태도의 소작인은 이렇듯 서사공간의 주체로 부각되며, 서태석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장식적 의미로 배면으로 물러난다. 역사 발전의 법칙을 구현하는 이러한 서사에서 작가가 의도하려 한 민중성은 굴절되지 않고 뚜렷하게 부조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태석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민중과 그들로 대표되는 민족이 주체적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얼마나 긴요한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눈여겨보게 된다. 그들은 소작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진정한 생존을 전취(戰取)하기 위하여 투쟁에 나서는 발화적 역할을 떠맡는 것으로 자신들의 충위를 한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소작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필연으로 형성된 계층이며 인간적 삶을 위해 나아가는 역사발전의 정당한 주도 세력으로서의 의의 또한 지니게 된다. 지식인은 미래의 역사가의 눈에 비칠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그 자체로서의 사회를 표현한다.¹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소외된 계급 고유의 속성을 간직한 그들은 시대의 무기력과 폭력성을 가장 전면에서 맞이한다.

작가는 본질적으로 지식인이다. 정신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제하는 데서 『암태도』와 같은 진보적 이념을 주재하는 작품은 씌어진다.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소작인들에게 격렬한 생명 의식을 불어 넣어주는 지식인의 선도적 행위는 민중을 지향하는 작가의 의식을 전사한다. 지식인의 추상적 현실 인식과 운동의 관념성을 넘어서기 위해, 『암태도』는 철저히 역사적 사

9) 『암태도』, 69면.

10) 사르트르, 조영훈 역, 『지식인을 위한 변명』(한마당, 1999), 92면.

전을 기억해 내고, 지식인의 현실적 구체성을 살려내려 한다. 그리하여 삶을 통해 체득한 감정과 의식을 구비한 지식인은 민중과의 화해로운 조화를 이루어낸다. 지성이나 계몽적 권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이러한 지식인과 민중의 조율은 『암태도』가 진보 의식을 낙관적으로 펼쳐나가는 확고한 기반이 된다. 서태석은 그런 점에서 특히 다른 지식인 그룹과도 비견된다. 그는 융통성 없는 이념 체제와 투쟁 방법에 고루하게 얽매이지 않고 민중의 집단적 정서와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상황을 존중하고,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진정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구비해야 할 이상 인격을 『암태도』는 서태석을 통해 기획한다. 훼손된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고자 사적 개인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자신을 몰입해 가는 그에게서 사람들은 너무도 인간적인 화신을 경험한다. 일상인의 정상적인 삶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물로 타락한 세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예외적 인물, 루카치는 이를 문제적 인물¹¹⁾이라 칭한다. 서태석은 농민들의 피착취적 현황과 후진성을 일깨우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 전선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민중에 헌신한다는 명분적 생애가 개인생활을 위압하고 도덕적 이타성이 그의 내면을 지배한다. 식민지 체제하에 면장을 지냈다는 자기회오와 자기폭로를 통해서 이러한 이상적 지식인상에 도달하는 그는 민족이 처한 상황 논리에 의하여 더욱 절대적 가치를 지닌 숭고한 인물로 현시된다. 민중 운동이 민족운동과 등치되고, 민족운동이 절실한 상태에 이른 암울한 국면에서, 암태도의 소작쟁의는 민족의 집단적 생명이 전실하게 살아있음을 표징한다. 이렇듯 서태석의 지도력과 실천은 민족의 생명을 살려내는 의미로 전화되며 일제의 식민화 논리에 의해 절실히 버릴 듯한 시대 국면에 올바른 지식인의 전형을 구현한다.

11) 문제적 인물(problematic character)은 골드만에 이르르면 다소 변질된 의미를 지닌다. 루카치는 헤겔의 세계사적 개인에 주목하여, 저주세계에서 그러한 역할을 구현한 진취적 인물을 지시하는데 이를 사용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세계 변혁을 위한 그의 매개적 역할이다. 이에 비해 골드만은 이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아닌 명확하고 엄격하게 의식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작중인물을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3. 민중 주체의 신생과 자발성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빈사 상태와 그러한 지경에 이른 원인을 자각하고 쟁의의 대열에 나서는 것, 계급적 동질성을 뜨겁게 공유하며 불사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지주를 굴복시키고 공통의 목적을 얻어내는 것, 『암태도』는 이러한 서사적 개요로 이루어진다. 이때 민중주의는 농촌 현실의 정당하고 심원한 재현과 분석적 시각을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 현실을 실상 그대로 올바로 반영하고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리얼리즘의 과제는 이러한 반영의식과 작가적 성실성으로 하여 감동적으로 완결된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민중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고양해온 민중 의식이 아니고는 도달하기 어려운 민중들의 삶이 여기에는 섬세하게 묘사된다. 그것은 소작인으로 대표되는 민중의 외현(外現)적 삶에 대한 충실한 반응을 넘어서 그들이 일상 속에서 미묘하게 자아내는 인간 관계의 감정과 개인의 미세한 숨결까지도 잡아내는 것이어서 풍부한 현장감을 내보인다. 현실 그 자체의 구조와 논리를 포착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은 리얼리즘 시학의 독특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리얼리즘적인 창작의 형태에 본질적인 일련의 특수한 복잡성을 규정한다.¹²⁾ 암태도 소작인들이 당면했던 어처구니없는 생존 조건에 대한 치밀한 재현은 궁극으로 이러한 리얼리즘의 본질을 실현하는 척도에서 현실을 해독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당화한다.

소작제의 결함과 모순을 직시하고, 지주의 추악성을 폭로한다는 것은 식민지 체제하의 지배 블록에 대한 항거를 의미한다. 상실된 민족 자존을 회복할 주동적 계급이 인구의 팔 할을 차지하는 농민이고, 그 농민의 대부분은 영락한 소작인임을 이 소설은 냉철하게 주목한다. 소작인은 농민을 대표하고, 농민은 민족을 대표한다는 논리에는 현실 변혁의 힘이 민중에게 있다는 작가의 소신이 투영된다. 사회 현실의 변혁은 당 시대 모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민중에게 의해 완성된다는 작가의 신념이 거기에는 또한 담긴다. 『암태도』에 풍부하게 드러나는 소작인들의 정서적 교감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정념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존재인가를 노정한다.

12) G. M. 프리들렌제르, 앞의 책, 31면.

“한 집안이 똥망 나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점심 보자기는 그것이 무슨 청승이야?” 춘보가 반가이 맞으면서도 점심 보자기에 편찬이었다. “누가 아니래요. 암태도 천지가 들썩들썩하는 판에 집안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가는 동학군 나간 동네 변장다리 꼴로 병신이 되고 말겠는데, 이 빌어먹을 점심 안 싸들었다고 아무리 비대발팔을 해도 막무가내요그라. 어찌나 인정머리 없이 다조지는지 옛날 그 무지한 왜놈들의 불질 속에서도 발 그물에 뱀장어 귀어다니듯 했던 내가 읊나워를 할 수가 있어이지요.” “허허. 객공잡이도 먹대는 쉼네 구실인데, 거저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이러기로 하면 도와주는 사람들만 인심 내고 우리 인심은 꼬챙이에 찢어 되약벌에 매달라는 소린가?” “아는 말이 그 말 아니요. 가을 일에는 손톱 발톱도 먹는 것이고 아침 저녁 걸두리까지 다섯 때를 먹어도 댕구레는 늘 장대 빠진 채일인 것이 가을 식성인데, 먹자고 하는 일에 점심 한 끼에 살림 무너진다고 그 극성인지. 빌어먹을 와놓고 봐도 알뎁네.”¹³⁾

교락을 공유하는 소작인들의 인정미는 이 소설의 낙관적 전망을 이끄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그들은 뜨거운 동료애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결점을 추궁하여 교정하는 비판적 자기 성찰의 냉정함을 여기에 겸비한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동시에 강하며, 궁핍을 인내하며,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기꺼이 내맡긴다. 절절한 인간성으로 충만한 그들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국면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대안적 계층으로 부각된다. 그들은 현재의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있으면서도 개체적 생존을 위한 비열함을 내보이지 않으며, 포악한 환경에 흡입되어 좌절하지도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의 현상을 가장 민감하게 감촉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주체가 곧 그들이다. 소작 쟁의를 거치면서 그들은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현실 인식을 강화하면서 이념적 집단으로 갱생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리얼리즘은 궁극으로 경향적으로 올바른 사회적 실상을 표현한다.¹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란 진정으로 삶에 몸 담고 조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포착된 그것이며, 성실한 사람들의 삶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유린하는 외적 힘의 간교함과 폭력성을 정시하고 응징하는 그것이다. 『암태도』의 민중적 시각은 이러한 리얼리즘의 경향성을 수렴하면서 노동 생산의 주체로서 민중이 지닌 의식의 순결성과 결집된 힘의 풍만한 잠재력을 내보인

13) 『암태도』, 80면.

14) 페터 뷔르거, 김경연 역, 『미학이론과 문예학 방법론』(문학과지성사, 1987), 60면.

다. 이러한 소작인들의 고상한 지위는 두 차원에서 확보된다.

하나는 소작인들의 계급 투쟁이 특정 부류의 계급적 정당성을 회복하자는데 머무르지 않고 민족 투쟁의 성격으로 확대되는 점에 있다. 『암태도』의 소작쟁의가 지닌 특수한 상황을 말해주는 이러한 국면은 이 소설이 은밀하게 지향하는 숭고한 가치를 함유한다. 식민지하 민족 투쟁이란 독립으로 가고자 하는 절대화된 민족 갈망에 부합된다. 『암태도』는 소작쟁의가 민족운동이란 성스러운 기치에 접맥되어 있음을 명백히 전언한다. “지주들은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속으로는 별반 바라는 것이 아님”을, “일본놈들이 지주들을 옹호”¹⁵⁾함을 간파한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자립성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민족 주체를 재건하는데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자신들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중심 플롯을 형성한다. “일본놈들하고 싸울 사람은 누구 누구니 해도 그놈들한테 짓밟히고 있는 농민들 밖에 없”고, 그들의 투쟁은 “소작쟁의만이 아니라 독립운동”¹⁶⁾이 된다는 논리를 이 소설은 긴박한 서사와 현장감 있는 세무항의 묘사를 통해 입증해 간다. 민족과 역사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지를 자각하고 결연히 항쟁의 대오에 나서는 민중들의 가열찬 의지와 실천을 내세움은 이 소설이 민중들에게 가멸게 보낸 애정과 희망의 궁극적 기대치를 반영한다.

민중은 현실 변혁의 실제적 힘이며, 그들에 의해서만 최후의 승리가 담보될 수 있다는 서태석의 판단과 그에 의한 운동 방향의 설정은 옳았다. 혁명기 러시아 인테리겐차에게 기대되었던 민중 연대, 도덕적 순결성 등과 같은 역사적 책임이 식민기 지식인에게 그대로 주어진다. 여기에 민족의 해방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책무가 부과되어 사적 개인의 생활과 욕망은 용납되지 않는 강박 상태로 지식인을 몰아간다. 『암태도』에 입상화된 지식인들은 그러한 지식인의 당위적 조건을 스스로 터득하고 몸소 실천해 나가는 이상적 모습으로 투사된다. 암태도 소작인 역시 이러한 지식인의 계도에 의해 자신들의 계급성을 자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주목하고, 그것의 부당성을 터득하며, 미래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외부의 선도와 지원을 필

15) 『암태도』, 62면.

16) 『암태도』, 63면.

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의 실천을 재점검할 충고와 행위의 감정적 충만함을 공유할 격려일 뿐이다. 최초의 그것은 지식인의 매개를 거쳐 터득되었으나, 일단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의식과 의지 안에서 투시되고 분석된 후에는 자발적인 자신들의 실천력으로 진정한 삶의 조건을 향해 전진해 나간다. 지식인은 민중들의 본능적인 욕구에 정신적 형태를 부여해 주며 열정과 감동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민중들은 마음에 불을 지르며 변혁을 위한 전선으로 나아간다. 이렇듯 암태도의 사건은 민중들에게 삶에서 우러나오는 의식적 체험이자 정신적 성장의 조건을 부여한다.

다른 하나는 소작인들의 도덕적 순결성이다. 이는 작가의 민중 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부여¹⁷⁾의 소산으로, 실제 작품의 서사공간을 지배하는 가장 유표(有表)한 인식소이다. 부당한 현실을 개혁하는 주체로 나서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진요해지는 것은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순수함이다. 사적 개인에 기울어진 이익과 감정적으로 처리된 편견을 버리는 것, 나태와 쾌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심신을 견책하여 목표를 향해 몰입해 가는 것, 동료의 감정과 입장을 살피 배려하면서 유대감을 지속해 내는 것, 이는 수구 세력의 음모와 반격을 이겨내고 끝내 진보적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혁신의 주체가 지녀야 할 내역이다. 이러한 순정한 몸가짐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도덕적 단련이 요구된다. 운동의 주체자임을 깨우쳐 가는 암태도 소작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내면에 수반되어야 할 도덕적 순수성을 자각한다. 소작인들이 도덕적 자기 무장을 한다고 해서, 이 작품이 도덕적인 테제를 표명한다거나 도덕적인 영향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좀더 인간다운 세상으로 나가길 바라며 항쟁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인간다운 순정함을 보여야 한다. 소작인들은 암태도의 민중 공동체를 건설히 진립하기 위해 절실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정신적 양식이 도덕성임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도덕적 인간으로 신생(新生)함은, 그러한 순결함으로 살아감은 현실을 변혁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숭고한 조건이 된다. 실제 『암태도』에

17) 진정석, 「민중적 주체성의 복원을 위한 도정 -송거숙론-, 《참작과비평》(1995. 겨울), 262면.

그러진 소작인들의 아름다움은 정당한 인간의 지위를 위해 항거하고 마침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 못지 않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도덕적 인간미이다. 지주와 식민지 권력에 대면한 불가능해 보이는 투쟁에서, 자신에게 다가올 육체적 정신적 처벌을 각오하고 나서는 그 돌연하고도 호기로운 행동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사사롭게 놓여진 일상의 생활을 엄정하게 단속하는 일이다.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쟁의 과정에서 얻은 가장 고귀한 유산은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고 일으켜 세우는 존재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 있다. 모든 현실적 가치들의 실체적인 원천으로서 삶의 진실을 확립함이 외부에 있기보다 자신의 삶 내부에 있다는 믿음은 『암태도』의 심연에 자리하는 민중주의의 토대를 이룬다. 민중 각 개인의 삶이 올바를 때 민중 연대는 가능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만 그들의 목소리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리하여 마침내 이상적 사회로의 진보를 이끌어 내리라는 논리가 여기에는 담긴다. 암태도 소작인들의 도덕적 내림은 지주와 비견하여 인간다운 삶의 우월성을 보증하는 가장 두드러진 표지로 서사공간을 따뜻하게 감싼다. 『암태도』에 구축된 민중들의 진정한 승리는 이렇듯 자신들의 삶 일체를 도덕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집단적 정서와 의지의 정당함에 있다.

암태도 소작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명확하게 통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정확하게 모색했다. 그들은 편협하고 조급하게 자신들의 현안 해소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민중으로, 더 나아가서는 민족으로 확대될 운동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한다. 동학 가담 후 암태도에 은거했던 이만석의 경우로 대별되는 소작쟁의의 역사적 승계성, 곧 소작 쟁의가 동학에 잇닿아 있다는 민중 민족운동의 계보적 연원에 대한 상징화 구도는 『암태도』 사건의 역사적 민족적 의의를 고양시킨다.

4. 반영양식의 유연성

『암태도』는 소설 형식이 가질 수 있는 현실의 객관적 반영 원리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서려 기획된 작품이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이십년대

농민의 실상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당시 보도되었던 신문 기사와 사실을 첨부하면서 이끌어 가는 쟁의의 전말, 그리고 『발문』을 통한 현장 취재 내역 등, 이 작품은 허구를 배제하려는 의도의 흔적을 곳곳에서 내보인다. 모든 작품은 그 시대의 명백한 자취¹⁸⁾를 드러내면서 인간과 세계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실증적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는 『암태도』는 한 시대의 인간 및 정황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진정으로 민족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추궁한다. 민중에 기대인 역사의 발전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역사의 주체인 그들의 의지와 입장을 전언하고, 그들의 미세한 감각적 정신적인 감수성조차도 놓치지 않고 표현해내려는 작가의 구도는 암태도 소작 쟁의라는 역사적 사건과 결합되어 진보적 리얼리즘으로 구현된다. 리얼리즘이 인물들의 운명을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 안에 편입시킨다면, 인물들은 시대와 역사적 과정에 대해 특별한 감각을 가진다.¹⁹⁾ 『암태도』는 인물들의 역사적 규정과 전형을 살려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 소설로 재현된 세계는 현실 그 자체의 속성을 정수로 드러낸다.

허구세계와 현실세계의 간극을 매우며, 소설에 그려지는 모든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러한 역사의 진행에서 우리가 진정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전하는 양식으로 송기숙은 소설을 택한다. 작가에게 역사적 진실을 동시대와 후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수행하는 것은 소설이란 문학 양식의 미적 구비 조건에 충실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는 작품을 쓰는 이유이다. 이때 소설은 민중을 지향하는 작가의 정열적 욕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정작, 작가의 이러한 전략적 의지가 참다운 소설 미학을 창조하는 정신적 원천이 된다. 소설은 언어의 교묘한 부림이 문제가 되는 양식이 아니라 정신의 근거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내면이 문제가 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인간 정신을 깊이 있고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심원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하는 요인은 그것의 양식적 특성에 있다. 시대의 변천과 다각적인 사람들의 미적 욕구를 포괄해 내는 소설의 포용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송기숙은 소설이 지닌 이러한 양식적 특질을 최고도

18) 아놀드 하우스, 한중석 역, 『예술과 사회』(홍성사, 1981), 111면.

19) 귀 라루, 조성애 역, 『사실주의 문학의 이해』(동문선, 2000), 111면.

로 실현하면서 『암태도』의 리얼리티를 구현한다.

암태사건은 사회적 중대 사건이다. 이를 일 도민(島民)의 이해 문제라 하여 법간(凡看)할 수 없고, 일개 지주의 악행문제라 하여 경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의 중대함을 말하고자 먼저 사건의 경과를 대개 적으려 한다. … 지청 구내 맨땅 위에 높고 앉은 군중이 모두 침식을 꾀한 지 벌써 수일 이라. 신음하는 것은 병들은 노인들이요, 재호(嗙號)하는 것은 젖주된 아해들이다. 지청 구내. 통로에 정복 경관은 인정없는 눈으로 이를 내려다보고, 지청 부근 여관에 지주 문재철은 주배(酒杯)를 손에 잡고 이를 방관하니, 이것을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없는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 이 문재철이라는 자에 이르러는 그의 흉악이 궁극(窮極)하여 거의 비유가 없다 하겠다. 6백여 인의 생명이 조석에 있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동념(動念)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냉매(冷罵)하며, 이를 악평하여, 혹 기인(幾人)의 선동이라 하며 혹 무리한 요구이라 하니 이 어찌 분별(分辨)할 것이나 되랴마는, 무리한 요구이면 도민(島民) 6백여 인이 어찌 생명을 버릴 결심으로 이를 구하며 기인의 선동이면 어찌 생사를 다투게까지 이르랴. 사생은 대사라 큰 관계 없이 결심이 이렇게 굳게 되었다 하면 누가 이를 믿으랴. 과중한 소작료로써 이마 빈민의 고혈(膏血)을 팔리고 이제 그들의 남은 생명까지 저로 인하여 단절하게 되었으니 이는 도민의 구수(仇讐)뿐이 아니라 우리의 다같이 절치(切齒)할 바이다.²⁰⁾

신문기사가 지닌 사건의 실황에 대한 객관성, 사실이 호소하는 사건의 진실성은 『암태도』의 후반부 서사에 주요하게 수용된다.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미학은 사건의 극적 전개보다도 오히려 그 사건이 지닌 인간적 정념과 진실에 있음을 이러한 소설형상 방법은 표지한다. 인간적 모습이란 생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가의 시각이 관건이 될 터인데, 『암태도』에서 송기숙은 소작인들이 지주와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 조건을 면밀히 드러내면서, 비참한 현실을 견디며 그것에 대처해 가는 그들의 인간성을 풍부하게 표현한다. 신문기사와 사실은 그러한 소작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이자, 그 자체로 서사의 흐름을 증축시키는 소설 세계의 한 부분이 된다. 역사적 상황의 도움을 빌어 소설의 허구성을 감쇄시키고, 묘사된 주인공들의 개인적 운명을 역사의 움직임에 편입시키는 이 방대한 서사는 절대 다수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들을 진보적 인간을 위한 희망으로 제시한다.

20) 『암태도』, 252-3면.

소설 형식의 무한한 유연성과 탄력성²¹⁾은 『암태도』의 다양한 서사 구현 방식에 잘 드러난다. 리얼리즘은 이전 문학의 장르들과는 달리 결코 굳어지지 않으며, 어떤 기존의 규범적인 형태로 주도되지 않고, 운동하고 발전하는 현실 그 자체의 조건적인 운동 속에 항상 위치한다. 현실의 철저한 반영을 통해서 리얼리즘을 실현하고, 그러한 문학적 경향이 드러내야 할 인간정신을 심현하게 추구한 『암태도』는 리얼리즘 소설의 양식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코자 한다. 신문의 기사와 사실뿐만이 아니라 민담, 판소리 사설, 동학담 등을 아우르는 서사공간은 충실하게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소작인들의 비참한 상황과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항거의 정당성, 나아가 민족적 역사적 층위로 전화되는 운동의正当한 의의 등을 다면적으로 접근해 간다. 『암태도』의 진정한 재현이란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국면에 대한 윤곽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민족이 처한 전체적 지평에서, 그리고 역사적 연쇄 고리 위에서 총람할 퍼스펙티브를 지향한다. 그것은 암태도 소작인들의 분연한 사태를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일대 상징 사건으로 증폭시키는 작가의 의미부여와 관계된다. 이러한 의미의 전화야말로 『암태도』가 역사의 집단적 기억을 재생코자 하는 간절한 속내이며, 이 작품이 독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진정한 주제이다. 문제는 그것을 형상하는 방법인데, 『암태도』는 리얼리즘 소설 양식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창조하는 형식의 유연성에 기대어 고유한 작품 모형을 구성한다.

작가 의식의 전사만으로 소설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는 한계가 있다. 의식의 동일화는 이 작품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쾌미의 요건이다. 이것이 도도하게 흐르는 장편소설에서 긴장감 있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소설의 흥미를 이끌면서 서사 의도에 수렴될 하위 플롯이 서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데, 『암태도』는 남사당패 소리꾼였던 이만석과 박만재의 로맨스를 삽입함으로써 서사 진행을 더욱 박진감 있게 유도한다. 떠돌이 소리패 이만석의 양혼(仰婚)은 양반과 상민이란 계급의 경계를 허무는 시대 전복적 의미를 구현하

21) 바흐친은 소설이 본래 규범적인 양식이 아닌 영원히 진행 중인 양식임을 통찰한다.(G. M. 프리들렌제리, 앞의 책, 203면) 소설은 강력하게 다른 장르들을 자신의 세력권 속으로 끌어넣을 수 있다는 그의 성찰은 『암태도』의 양식적 특성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한 근거를 부여한다.

며, 박만재의 결혼은 민중 연대와 화합의 의미로 확대된다. 특히 박만재와 문연엽의 연애담은 이 작품의 중심에 반복적으로 끼어 들면서 서사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흥미를 자아낸다. 이 작품의 낙관적 전망은 소작쟁의의 승리와 더불어 이 두 연인의 결합에 크게 기대어 있다. 이 둘의 관계를 안타깝게 감싸던 불길함은 극적으로 전환되면서 작품의 결말에 이른다. 화해와 생성으로 충만한 이 결합의 장면에서 암태도를 짓누르던 공군과 절망은 무화되고 새날들에 대한 기대가 몽클하게 생성된다. 서사형식의 참발과 쾌미를 위한 플롯의 구축은 궁극으로 재현된 세계의 가치 범주를 전언코자 하는 간절한 욕구의 문학 기법적 소산들이다.

5. 맺음말

송기숙의 문학은 농민을 위시한 민중 집단을 민족사의 주체적 세력으로 정립하기 위한 예술적 실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²²⁾ 『암태도』는 『자랏골의 비가』에서 『늑두장군』에 이르는 그러한 작가적 도정에 주요한 표지로 자리한다. 열악한 농촌 현실과 그 속에 삶의 뿌리를 내린 농민들의 고단한 삶은 이 작품들이 생성되는 근원적인 서사적 환경을 이룬다. 자신들의 계급적 동질성을 자각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응해 가는 단결된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건강한 인간 집단의 공동체적 이상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인간성이 함유하는 진정한 선의와 화해의 미덕을 풍부하게 간직한다. 『암태도』는 농민으로 대표되는 민중의 의식적 발전 과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계급적 이익과 인간적 예우를 얻어내는 희망의 서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농민소설들 중에서도 각별한 의의를 더한다.

이는 작가 송기숙이 재현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리얼리스트로서의 엄정함과 미적 성실성에 기인한다. 소통에 대한 열망은 작가의 자기 이념이 철저하고 강렬할수록 그 정도가 증폭된다. 욕구가 존재하는 곳에만 가치가 존재한다. 작가가 살던 시대의 문학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감정의 세세한 면들까지 흡

22) 진정석, 앞의 글, 163면.

입하여 반응하는 이러한 욕구의 근저에 민중문학의 도저한 유포가 있다. 그러한 시대의 문학적 갈망과 작가의식이 결합하여, 축적된 역사의 고통에서 현재적 의미를 발견해낸 작품이 『암태도』이다. 이 작품은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고통을 떨쳐버린다면 역사 기술로서의 소설이 무슨 의미를 지닌단 말인가 하고 반문한다. 그리하여 『암태도』에 담긴 집단의 기억은 망각할 감상적 이미지들이 아니라 현장감 있게 재현되어, 그것의 시점을 기반으로 현재의 삶이 구축되며, 현재는 늘 그곳으로부터 반성적으로 비롯되고 있음을 일러준다.

기억과 기록에 의존하여 철저히 현장 채록 혹은 사건 보고의 관점을 취하고자 했으나 그것은 리얼리즘의 객관적 진실을 구현하는 잘 짜여진 소설적 형상에 통합되어 역사적 시의성(時宜性)을 조건짓는다. 식민지 민족적 특징과 민중의 역사적 운명을 견인하는 암태도 소작쟁의는 소설로의 형상을 거치면서 역사적 긴장을 얻는다. 그것은 민중의 삶이 맞이하는 전환기의 표현으로, 강렬하고 집중적인 문학적 분석이 가해진다. 집단적 경험을 반영하는 풍부한 세화와 긴박한 서사는 한 시대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감정, 의식 등을 충실하게 전해준다. 『암태도』는 단순한 관찰의 리얼리즘이 아니라 변화와 미래의 리얼리즘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진정한 삶을 향한 진보라는 의미가 내포된다. 투박한 토속어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으나 웅골차게 풀어져나오는 말들은 그러한 진보의 이념을 은밀하고도 강렬하게 수식한다. 이 탁마된 언어구사는 『암태도』가 소설미학적으로 거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별도의 깊이 있는 통찰을 기대한다. 작가는 소설에 가용할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암태도』라는 진지한 정신과 독특한 형식을 지닌 리얼리즘 소설을 우리에게 남긴다.

참고문헌

- 송기숙, 「작가에게 지워진 역사의 짐」, 《창작과비평》(1994. 겨울).
 전형준, 『현대 중국의 리얼리즘 이론』(창작과비평사, 1997).
 진정석, 「민중적 주체성의 복원을 위한 도정 -송기숙론」, 《창작과비평》(1995. 겨울).

- 차봉희,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한마당, 1987).
- Auerbach, Erich, 김우창·유종호 역, 『미메시스』 근대편(민음사, 1988).
- Fridlender, G. M., 이항재 역, 『러시아 리얼리즘의 시학』(문원출판, 2000).
- Kohl, Stephan, 여동균 역,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미래사, 1986).
- Larroux, Guy, 조성애 역, 『사실주의 문학의 이해』(동문선, 2000).
- Lukács, Georg,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심철당, 1985).
- Hauser, Arnold, 한석중 역, 『예술과 사회』(홍성사, 1981).
- Sartre, J. P., 조영훈 역, 『지식인을 위한 변명』(한마당, 1999).

<Abstract>

The Truth of Representation and Aesthetic Integrity

Song, Ki-seob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uth of representation and aesthetic integrity revealed in *Amtaedo*, written by Song, Ki-Sook. It is a main peasant novel of Korean literature that shaped a historical event, happened in the island Amtaedo.

In the novel, Song emphasized purity and unity of peasants, and disclosed exploitation and trick of landowners. Moreover, he regarded the aesthetic integrity of writer to be very high. Aesthetic integrity, a term of Georg Lukács, constitute a right consciousness that is founded on objectivity of realism. Seo, Dae-Seok, problematic character embodied in the novel, speaks for consciousness of writer who is an intellectual. He awakens peasants exploited by a landlord and lives up to his own beliefs.

Amtaedo is a realist novel that offers historical truth and incarnates a popular idea. As a realist, Song who practises dialectical portrayal is contrasted with superficial naturalistic writers who record immediate experiences. He knows how to describe peasant pass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totality of social life. Therefore, *Amtaedo* internalized an ideology of the laboring classes is a realist novel that is accompanied by the truth of representation.